

클래식·뮤지컬·판소리...다함께 '오월 하모니'



6 5·18 음악회

17일 5·18오페라 등 해설 있는 무대
18일 일본 단체 참여 '오월국제음악회'
19일 노대동 물빛공원에서 '광장음악회'

5·18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광주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음악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사)문화공동체 무지크바움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기를 맞아 지역민들에게 5·18 정신을 알리는 음악회를 기획했다. 17일 오후 7시30분 나주문화예술회관.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나주문화예술회관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와 (사)문화공동체 무지크바움 주관하며 전남나주교육지원청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공연 해설은 김정아 한국피아노학회 호남지부 회장이 맡았으며 소프라노 김진희, 앙송이, 테너 김백호, 바리톤 엄종호, 피아노 나원진 등이 무대에 오른다.

조태일의 시 '겨울소식', '풀씨', 이은봉의 시 '우금치 흙', 김지하의 시 '황토길', 김준태의 시 '아아 광주여...' 등을 선보인다. 또 임동학의 시 '매장 시편', 문병란의 시 '어느 구두닦이 소년의 죽음', '광주여 영원하라'를 준비했다.

김선철 작곡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창작오페라 '무등동동'의 주요 아리아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며 무지크바움 (이화)유스오케스트라(지휘 신정문)의 연주로 시벨리우스의 '핀란드야', 김민기의 '상록수', 김선철 편곡의 동요매들리가 연주된다. 전석초대. 문의 010-6422-1991, 061-339-2533.

1980년 5월 광주의 정의로운 항쟁과 공동체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오월국제교류음악회'는 18일 오후 7시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이달 말까지 광산구가 진행하는 '2018 광산오월문화제'의 일환인 이번 음악회에는, 일본의 '일어서라! 합창단'(대표 시미즈 노리코), 푸른솔합창단(지휘 정유하),



최근 열린 '광장음악회' 공연 모습.



김정아



테너 김백호



작곡가 김선철

광주흥사단 기러기합창단(지휘 교수연), 광산구립합창단(지휘 정요원) 등이 무대에 오른다.

이날 공연은 광산구립합창단의 '도라지 꽃', '꽃구름 속에', '우리의 소원', '아름다운 나라'를 시작으로, 광주흥사단 기러기합창단의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따뜻한 햇빛 한 줄 될 수 있다면', '광야에서' 등이 이어진다.

네 번째 오월국제교류음악회의 무대에 서는 '일어서라! 합창단'은 '임진강', '미래를 걸고', '내 가는 이 길 험난하여도'를 들려준다. 이어 일본 반전평화운동 단체인 '아마가미 시계노리과 그 친구들'은 자작곡 '아이고! 광주' 등을 공연한다.

푸른솔합창단은 창작뮤지컬 '빛의 결혼식-임을 위한 행진곡' 중 1980년 5월 27일 새벽 대목에서 나오는 노래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결전의 날', '광주 출정가'를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모든 출연자들이 '인간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공연관람은 무료이며, 공연 뒤 받은 감동만큼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집하는 '감동후불제'를 실시한다. 모금액은 어려운 이웃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쓰일 예정이다.

16일 퓨전국악콘서트 '흥그레 흥그레'로 문을 연 광산 오월문화제는 26일 기념음악회 '민족음악산책', 30일 창작판소리 '운상원 가(歌)'로 이어진다. 문화제 기간 동안 문예회관 로비에서는 '오월 전시'도 함께 열린다. 문의 062-960-8833.

19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남구 노대동 물빛근린공원에서는 제 84회 광장음악회 '5월 그리고 촛불'이 열린다.

이날 음악회에는 바리톤 정찬경, 테너 이상화, 베이스 김일동, 소프라노 김지영, 이기숙, 피아노 이유정 등이 출연한다.

첫 무대는 다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시작한다.

이어 김동진의 '신아리랑', 헨델의 '올게하소서', 김동진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카탈로의 '무정한마음', 프랭클의 '백학', 윤학중의 '마중' 등이 이어진다.

또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사계', 최영섭의 '그리운 금강산', 박문옥의 '직녀에게', 안병원의 '우리의 소원' 등이 펼쳐진다. 문의 010-2038-3622.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사연 읽어주며 소통... '원보틀' 공연

20일·8월19일 송정마을 카페이공, 11월24일 광주아트홀

시인 파울 첼란은 '시는 어딘가에서 띄워 보낸 유리병 편지와 같다'고 했다. 유리병 편지는 가장 원시적인 방편이지만 보내는 이의 마음이 오롯이 담긴 편지라 할 수 있다.

'원보틀'(One Bottle·사진)이라는 공연팀이 있다. 옛날 편지를 담아 바다에 띄워 보냈던 유리병을 의미하는 이름이다.

관객의 사연을 읽어주며 그에 어울리는 곡으로 꾸미는 무대가 마련된다. '원보틀'(One Bottle)은 오는 20일과 8월 19일 오후 7시 송정마을 카페이공, 11월 24일 오후 7시30분 광주아트홀에서 공연을 한다.

원보틀은 지난해 광주음악장작소 뮤지션 인큐베이팅에서 동상을 수상하고 12월에 미니앨범 1집 'Fall'을 발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는 신진예술인이다. 작곡·키보드의 정지은과 보컬 하늘로 구성된 일렉트로닉 팝 여성 듀오다.

'데이 앤 나잇', '푸르른 밤'이 게스트로 함께한다. 또한 유튜브, 팟캐스트, V 라이브 등 방송콘텐츠를 통해 실시간 방송될 예정이다. 지난 5월 10일까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연을 받았고



공연 시작 전 현장에서도 사연을 접수 받는다.

한편 이번 공연은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2018문화예술펀딩프로젝트'만세만 만(萬)만(滿)계'를 통해 모금이 이뤄졌다. 지난 4월11일부터 한달 간 150만원을 모금했고 매칭지원금 100만원이 더해져 총 250만원으로 공연이 진행된다. 문의 062-670-7957.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시민자유대학 28일 여름학기 개강

세계시민적 관점으로 학문과 예술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시민자유대학(학장 장복동)이 오는 28일 여름학기를 개강한다.

여름학기는 시민 책 쓰기, 플라톤 읽기, 한국근현대사, 맹자 읽기, 독일 문화 예술 강좌로 구성된다.

이번 여름학기에는 플라톤과 맹자의 저서를 다룬다. 박정민 교수(전남대)가 진행하는 서양 고전읽기는 플라톤의 '고르기아스'를 읽는다. 29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동양 고전읽기에서는 '맹자'를 읽는다. 류근성 교수(목포유달중)의 진행으로 6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열린다.

또 '시민 책 쓰기'를 통해 주제 토론, 글쓰기, 피드백, 그리고 퇴고를 통해 자신의 글을 완성하고, 이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장복동 시민자유대학장의 진행으로 28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열린다.

'사건으로 본 한국근현대사'는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에서부터 해방, 제주 4·3사건, 여순사건, 한국전쟁,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한국근현대사를 되짚어본다. 김봉국 교수(전남대)가 31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진행한다.

6월 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에 열리는 '독일 문화·예술로 가는 여행'은 독일의 건축, 미술, 음악, 문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독일이 이룩한 예술적 업적과 함께 독일의 역사와 종교, 음식, 예절 등 독일문화의 근간을 배운다.

이와 함께 7월28일부터 8월6일까지 '독일 여행 프로그램 : Hallo, Deutschland!'를 진행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엄마들의 인생 디자인'

광주문화재단 25일까지 참가자 모집

'청춘 콜렉션' 엄마들의 청춘을 바느질하다.

'경자씨와 재봉틀'은 엄마들의 청춘을 회상하고 이야기를 듣고 추억이 깃든 물건을 만드는 시간이다.

광주문화재단 자체기획프로그램인 '경자씨와 재봉틀'은 지난 2014년부터 5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엄마들의 청춘을 회상하고 마음을 보듬어 주는 치유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았다. 올해는 '가방 만들기'로 인생을 디자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문화재단이 '경자씨와 재봉틀 V-청춘콜렉션' 참가자

를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일(매주 수·금, 오후 2시~5시)까지 모두 10회로 꾸려진다. 주요 내용은 ▲'반가워요 경자씨'-경자씨를 위한 콘서트 ▲'경자씨는 디자이너'-삶디자이너 경자씨, 인생을 디자인한다는 것 ▲'경자씨와 재봉틀'-가방 디자인하기, 가죽공예 ▲'경자씨의 콜렉션쇼'-콜렉션쇼 기획 및 준비, 화보촬영 ▲'전시회'-직접 만든 가방, 가방 속 스토리텔링 전시 등이다.

참가대상은 50~60대 엄마 15명으로 참가비는 무료다. 올해는 신규 참여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며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희망자를 위해 전화접수도 운영한다. 문의 062-670-5762~4.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해 진행된 '경자씨와 재봉틀' 교육 모습.

아이와 문화체험 '엄마 기자단' 20일까지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문화예술현장을 즐기며 취재하는 '엄마랑 아이랑, 문화현장' 온라인기자단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7명이며 활동기간은 6월 부터 12월까지이다. 지역문화행사 현장 취재 기회와 함께 역량강화 워크숍, 문화예술현장 탐방, 우수 기자 시상 및 소

정의 원고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지역 문화예술현장에서 관람과 체험을 하고 취재 및 홍보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icf.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오는 2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8113@hanmail.net)하면 된다. 문의 062-670-7423. /박성천기자 skypark@

